
제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60년5월12일(단기4293년) 상오10시30분

개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

(10시 30분 개식)

○간사장 박두순; 지금으로부터 제35회 임시회개회식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대한 경례)

○부의장 이행득; 의원여러분 그동안안녕하십니까?

오늘 35회임시회의를 지방자치법 22조 단항을 적용해서 35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요먼저 34회 임시회의를 김재광위원외 17인으로 부터 소집 요청이 있어서 34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든 것입니다.

그날 4.19 민주혁명 학생 총궐기 데모 행사가있어서 정부에서는 돌발사태로 인해서 계엄령선포로 인해서 우리 34회 임시회의는 자동적으로 회의를개회하지 못하고 또 자동적으로 그 회의일수를 지났기 때문에 34회 임시회의는 개원식만 했고 우리 임무를 다하지 못한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이번 35회는 34회의회 소집요청이유 9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납검사 또한 기타 안건을 갖고 3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피로하셨지만 회계출납검사 우리 임무의 최종적인 이 임무를 완수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서 식사의 말씀을끝이는 바입니다.

○간사장 박두순;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시장 장기영; 오늘 35회 시의회개회식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인사드리게되는 기회를 얻은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점에 부족한 저로서 중대한 시국에 특별히 중한 책임인 서울특별시장의 직이라는 직을 받은 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직 또한 믿는바는 여러 시의원들께서는 근 4년간에 서울시청의 시정과 또 200만 서울시민의 시정에대한 모든 요구 또한 불만 이 모든 점을 다 잘 알고계시고 거기에대한 해결방안까지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여러의원들이신 만큼 제가 여러분의 이앞에 큰 기대와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또한 시직원이나 저 자신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살림 살피주는 이 책임을 맡고있으니만큼 저희는 시의원께서 직접 시정을 맡은 저에게 대해서 모든 시민을 위하는 점 시정하는 점에 대해서 어느때를 가리시지 마시고 많은 편달과 또한 제의를 늘 기다리겠습니다.

특별히 제 자신이 이것이 과도기니 만큼 이 급한시국에 저희가 시국타개책을 당분간 맡은 이 짧은 시간 입니다.

그럼으로서 저로서는 저희 성의껏 제가 가진 신념을 갖이

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쓰려고 노력하니 이점에 충분한 양해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간사장 박두순; 다음은 내무위원장 선창으로 만세삼창이 있으시겠습니다.

(만세삼창이 있었음)

이상으로해서 개회식을 끝마치고 잠시후에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5분 폐식)
